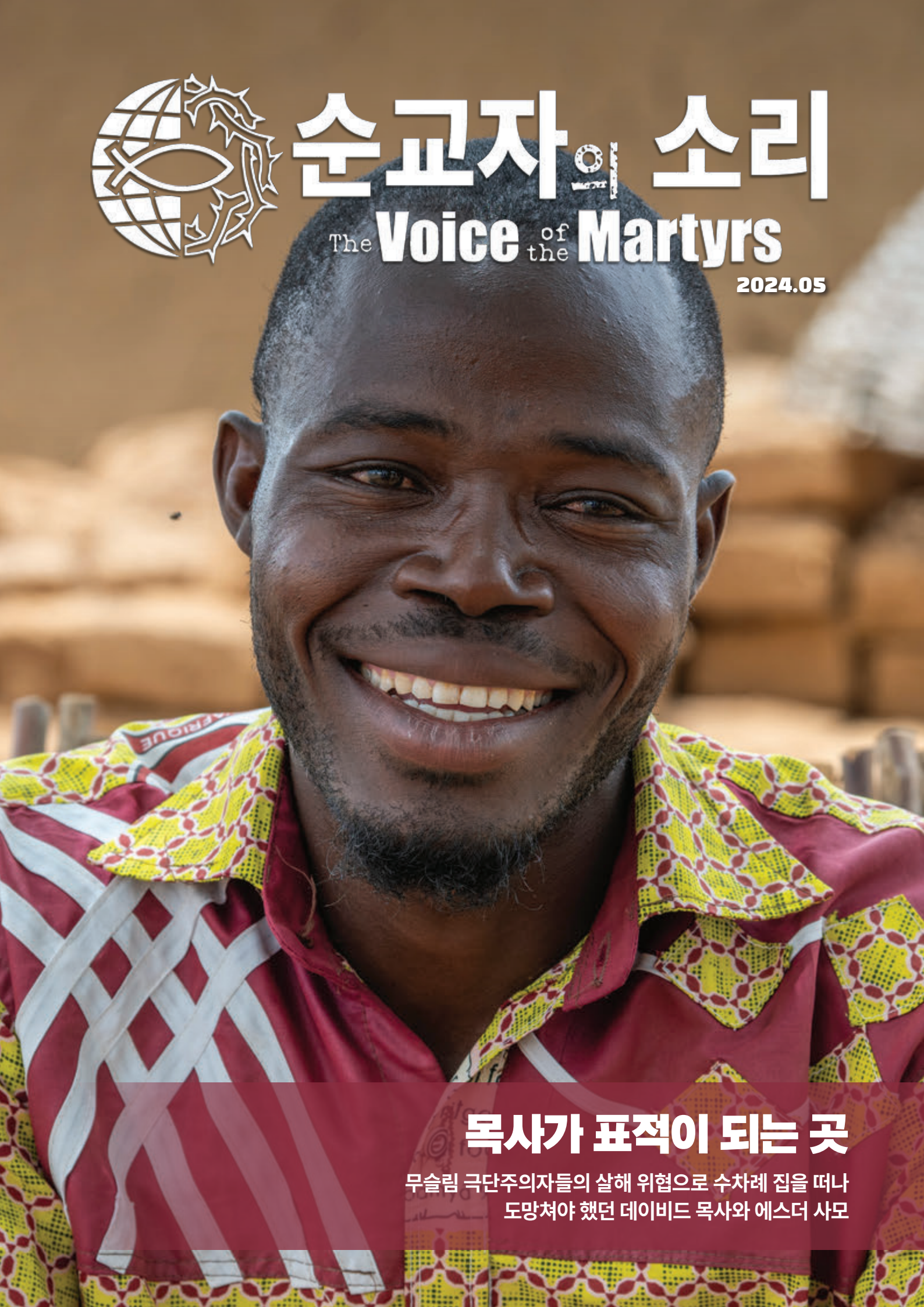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4.05



목사가 표적이 되는 곳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으로 수차례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던 데이비드 목사와 에스더 사모

훌륭한 모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집중하게 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성도들을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묘사하며 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번 소식지에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에르Pierre 목사,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데이비드David 목사가 바로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남편을 잃은 후에도 증오 대신 사랑을 보여준 부르키나파소의 야스민Yasmine 이야기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도 만나보세요!



난민 목회자, 난민을 위해 사역하다

피에르 라산Pierre Lassane 목사는 낡은 차트를 사용해 자신을 둘러싼 8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중에는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 초등학교였던 이곳은 현재 국내 난민 수용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모인 이들은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부르키나파소 여러 지역을 공격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로부터 피신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무슬림들은 자신과 종교가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피에르 목사가 주는 소망의 메시지에 더 마음을 열었다. 피에르 목사는 “테러리스트들이 오기 전에는 무슬림들이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피에르 목사가 난민들을 찾아가면,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

진리를 만나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웃 국가인 말리와 니제르를 침공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을 피해 2016년 이래 약 17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살해했다.

피에르 또한 한때 열렬한 무슬림이었다. 그가 21세가 되던 1985년, 형이 병에 걸렸고 의사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마지막에 피에르와 형은 한 목사를 찾아갔고 그의 기도를 받고 난 뒤 형의 병은 치유되었다.

피에르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대부분과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 아버지는 피에르 부부를 함께 살던 집에서 내쫓았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악령의 저주를 받은 땅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일주일도 못 버틸거라고 했어요.”라고 피에르가 말했다. 이들 부부가 그곳으로 이주한 직후 병에 걸리자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믿었다.

피에르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2주 남짓 지나고 피에르는 환상을 보았다. 치명적인

독사에게 쫓기던 중에 밝은 빛이 나타나자 뱀이 사라지는 환상이었다. 이 환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던 나무 한 그루가 폭풍우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피에르는 그 나무를 불태웠고, 그와 아내는 곧 병에서 회복되었다. 피에르 부부가 죽지 않자, 많은 마을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피에르는 부르키나파소 다른 지역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사역에 해한 부르심을 느꼈고, 2001년, 피에르는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후 목사 안수를 받은 피에르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부 주민들은 기꺼이 복음을 들으려 했으나, 이슬람교와 부족 특유의 심령술이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복음을 거부했다.

비록 아버지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피에르 목사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고 인근 지역에 5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한 그날까지, 피에르 목사는 수년간 이 교회들을 신실하게 섬겼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의 공격

부르키나파소에서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은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기독교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2019년 5월, 피에르 목사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무장 세력이 현지 목사 한 명과 집사 네 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장 세력들은 종종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정하곤 했다.

그 공격이 있던 지 이틀 후, 밤중에 무장 남성 40 여명이 마을 목회자를 찾겠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피에르 목사의 마을로 들어왔다. 이에 한 친구가 급히 피에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

피에르 목사 부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은신처에 숨어 무장한 남성들이 자신들을 찾아 마을을 수색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찾지 못했지만 주민 두 명을 살해했어요.” 피에르 목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느라 나가있던 자녀 8명과 상봉했다. 피에르 목사는 그 길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안전한 곳에 닿기까지 40km를 걸어야 했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이 수십 개의 마을을 공격했던 2019년, 주민들 약 60,000명이 집을 버리고 수도인 와가두구 Ouagadougou 인근 남부로 떠나와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교회 성도들은 주요 수입원이었던 농작물과 가축을 모두 버린 채 걸어서 피난길을 떠났다.

사역을 지속할 방법

부르키나파소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자의 소리 도움으로 피에르 목사를 비롯한 난민 목회자 140여 명에게 가끔씩 사육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난민 목회자들은 사육 간의 강좌에 참석해 현지 농업대학의 기독교인 교수에게 닭을 기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난 뒤 모든 목회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병아리를 분양 받았다.

목회자 중 일부는 양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에 필요한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피에르 목사의 가족은 몇 달간의 난민 생활 끝에 와가두구 시에서 북쪽으로 약 95km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했고, 20 명의 다른 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에르 목사는 닭을 키워 번 돈 중 일부를 연료 구입에 사용한다.



◀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에게 공격당한 부르키나파소 마을들. 이 공격으로 주민 수천 명이 집을 떠나 피신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순교자의 소리에 받은 오디오 성경을 사용하여 살고 있는 도시의 난민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성경을 듣기 원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에르 목사가 말했다.

새로 정착한 곳이 비교적 안전한 곳임에도 피에르 목사는 여전히 가끔씩 이슬람 무장 세력과 마주칠 때가 있다. “사육 전, 복음을 전하러 어떤 마을에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피에르 목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일발의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집을 떠나 피신하기 전, 피에르 목사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시련은 있겠으나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꿈은 “나는 네가 계속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명령으로 끝났다고 피에르 목사는 말했다. 그렇기에 피에르 목사는 부르키나파소 난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다 닳아빠진 차트를 손에 들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 낡은 차트를 보여주며 난민이 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피에르 목사

2024년 5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	2
			 남멕시코 피난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직업 훈련을 받은 것에 감사	 북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5 어린이날	6 대체공휴일	7	8	9
 나이지리아 밭에서 일하던 남편을 이슬람교도의 총격으로 잃은 티나를 위해	 브루나이 경찰 감시에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리비아 소수뿐인 리비아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필리핀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도 민다나오섬 성도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네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16세 쿠쉬와 세 여동생을 위해
12	13	14	15 부처님오신날	16
 레바논 난민 지원 사역을 하는 바삼 목사의 교회가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이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 수감자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젊은 기독교인을 양육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중국 안면 인식 프로그램 등의 기술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양아프리카공화국 이슬람 반군의 방해에도 모든 성도에게 각각 성경이 전달되도록
19	20	21	22	23
 튀니지 최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키나파소 교회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한 증인이 세워지도록	 이집트 명목상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미얀마 로힝야족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도시뿐 아니라 외딴 시골 지역에도 성경이 전해지도록
26	27	28	29	30
 아제르바이잔 교회 예배를 감시하는 비밀경찰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케냐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전도자들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레인 바레인 국민이 석유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몰디브 온라인으로 성경을 접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믿음 때문에 가족과 집과 직장을 잃은 개종자들을 위해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4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사용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날 주님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170만 명의 주민이 마을에 침입한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난민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며, 그중에는 목회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소식지에 소개된 피에르나 데이비드 같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고선 복음을 절대 듣지 못했을 무슬림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의 중요 표적이 된 부르키나파소의 일부 목회자들은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부르키나파소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남편이 살해당한 과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사역을 위한 헌금을 통해 지금 그 가정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5월 31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부르키나파소'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부르키나파소'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금요일	토요일
3	4
인도 개종 금지법으로 고소 당한 목회자와 교회 개척자 및 전도자를 위해	튀르키예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구타당한 소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10	11
모로코 창의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성경을 배포 중인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이스라엘 무슬림 장악 지역에서 성경을 갖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성도들을 위해
17	18
모잠비크 모잠비크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전해줄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다카 시의 가정교회들이 빛과 소망이 될 수 있게
24	25
모리타니 모리타니 내로 성경을 밀반입하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지부티 기독교 단체들이 정부에게 등록을 공식 허가받을 수 있도록
31	
이라크 계속된 성경 배포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무장대원 가운데 선 증인

수년 동안, 데이비드David는 오직 재단사가 되기만을 바라왔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다.

데이비드는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무슬림 인구가 50% 이상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에 뛰어들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 처음에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데이비드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털어놓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학교를 가라고 말해주었다. “당시 집에는 돈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 가라’고 하셨어요”라고 데이비드는 회상했다.

광야로 보내심 받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 1년 후, 데이비드는 에스더Esther라는 여성을 만나 2017년 결혼했다. 두 사람이 학업을 마칠 무렵,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의 폭력사태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5월에 졸업을 하자, 한 사역 지도자는 데이비드와 에스더에게 다른 지방 마을로 가자고 권했다.

사역 지도자들은 이들 부부를 사막에 있는 한 마을로 데려갔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그들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곳에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그들이 기거할 만한 장소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으며, 비가 내린 후에는 물을 길기 위해 10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플라니족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다.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떠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 처한 생활 환경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역 전망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해 듣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격려가 있

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교와 주술이 혼합된 신앙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치유를 비롯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에스더의 교회는 20명이 넘는 성도들로 성장했다.

공격 계획

플라니족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되는 모습에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 마을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꺾이고 말았다.

데이비드와 에스더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무렵,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은 인근 마을의 목회자 한 명을 납치해 말리Mali로 데려갔다. 그 목회자의 납치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곳에 남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교인 한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무장 세력이 데이비드와 가족, 교회 성도들을 납치해 강도로 끌고 가 살해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공격 계획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겁에 질려 있던 교인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드럼을 치고 아내는 찬양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 무장 세력 근처에 사는 데이비드의 친구가 긴급하게 경고의 말을 전해왔다. “친구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 것이니 도망가라고 하더군요”라고 데이비드는 말했다.

그들은 이번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다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위해 재배치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더 어려운 임무

2018년 3월,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새로운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도 역시 두 사람은 기거할 만한 곳도, 아무 소유도 없이 이내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데이비드 부부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그 지역의 한 이맘(imam, 이슬람교 성직자)은 사원에서 무슬림들에게 자신들이 따라야 할 종교는 오직 이슬람교뿐이라고 말했다. 그 이맘



의 가르침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 발언이 극단주의자들이 고수하는 치명적 전술로써, 데이비드 부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원에 오라고 말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한 사람이 설명해주었다.

그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거의 2년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마을 주민 26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들의 믿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의 다시금 데이비드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역 지도자들은 데이비드의 마을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된 후, 그에게 즉각 피신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망설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누군가가 ‘네 사역은 여기까지란다. 도망쳐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3개월 더 사역을 이어갔다.

그렇게 2019년이 저물어 갈 무렵 어느 날, 무장 세력이 데이비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사원으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데이비드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람을 한동안 따라가다가 돌아서 집으로 왔다.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도망쳐야 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사역은 계속된다

그렇게 두 번째 마을을 떠나고 2021년 5월, 데이비드 부부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로 이사했다. 데이비드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자 사역 지도자들이 몇 군데 지역을 추천해주었지만, 데이비드는 그 어느 곳을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와가두구 인근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 계속된 압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개척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예배 참석 인원은 8명뿐이다. 교인 중 다섯 명은 이슬람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데, 대부분 데이비드와 에스더가 기도해준 후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믿게 된 이들이었다.

2022년, 데이비드는 양계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그는 말했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은 부르키나파소 전역의 마을들을 계속 공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데이비드는 예전 교회의 교인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들 중 일부는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무장 세력의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맡았던 양떼들이 수년 동안 겪은 시련들을 되돌아보며, 자신과 에스더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들 중 일부는 떠났지만, 남는 자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2024년, 북한에 40,000권의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다양한 통로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 통에 성경을 담아 바다에 던져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 통에 잔돈을 모아 육로, 해상, 항공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세계 어디든 북한 사람이 있는 곳에 성경 40,000권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을 후원해주세요!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여 한국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존 로스 누가복음과 만주 선교 방법론 소개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40년 전, 평범한 조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전해준 통로, 존 로스 성경. 그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오늘날 모든 독자들을 위해 띄어쓰기, 문법을 교정하여 출간했습니다.

10,000원



지금도 북한사역에 활용하는 로스 선교사의 중국 선교 전략 「만주 선교 방법론」

존 로스 선교사가 실제 사역에 적용했던 선교 철학과 방법론이 담긴 중국 선교의 바이블. 성경적인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진정한 '기독교의 중국화'를 이룬 존 로스 선교사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세요!

10,000원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론」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전한 영적 유산. 오늘날 북한 지하교인들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

15,000원



존 로스 선교사(1842-1915)

2024년, 탈북민들의 국악 공연 "존 로스 성경 역사극"에 동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공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서울/대전/부산/그 외 지역)
- 공연무대: 음향, 분장, 조명(렌탈 포함)
- 촬영: 공연 실황 영상 및 사진 촬영

위 분야에 동역하기 원하시면 010-3151-2065로 연락주세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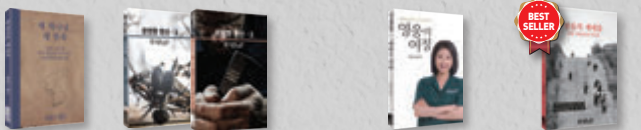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21 - 폼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10,000원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21C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SOLD OUT 30,000원
「조선어/쉬운 영어 성경」 (창세기/신약) 15,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